

# “내탕금으로 활자 만들라”

올해는 계미년(癸未年)으로 인쇄인들에게는 뜻 깊은 해이다. 왜냐하면 1392년에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조선을 건국하고, 3대 태종 이방원(李芳遠 : 1401~1418)이 왕이 된 후 3년 만인 1403년(조선 태종 3, 계미년)에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고, 금속활자를 만든 것이 ‘계미자(癸未字)’로 올해가 6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태종은 새로운 조선왕조의 기반이 안정되자 행정기구를 독자적인 관제로 개편하고,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국시로하는 왕권강화를 도모하였다.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훈구대신들을 처단하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유생들에게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서적을 간행하여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태종은 1403년 2월(음력)에 고려말 서적원(書籍院) 제도를 본받아 주자소를 설치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서적이 적어서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주자소를 설치하고 금속활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동철(銅鐵)을 조달하기 위하여 내부(內府)의 것을 모두 내놓게 하는 한편, 대소 신료들에게는 자원해서 동철을 내도록 하고 그 용도에 맞게 쓰도록 명하였다. 소요경비는 백성에게서 거두는 것이 부당하므로 임금의 사사로이 쓰는 재물인 내탕금(內帑金)을 다 털어 활자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태종이 문치를 펴기 위해 금속활자로 서적을 간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예문관 대제학 이직(李穰), 총제 민무질(閔無

疾), 지신사 박석명(朴錫命), 우대언 이응(李膺) 등이 그 일을 감독하고, 강천주, 김장간(金莊侃), 유이(柳蕘), 김위민(金爲民), 박윤영(朴允英) 등이 직접 일을 관장하였다. 활자는 1403년 2월에 착수하여 수개월 걸려 큰 자, 작은 자, 아주 작은 자를 합쳐 십만 여자에 이르렀다.

권근(權近)의 주자발(鑄字跋)에 의하면, 계미자의 글자의 본은 경연(經筵)에 소장된 주석이 달린 《시경》, 《서경》, 《춘추좌씨전》에 의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하는 계미자로 인쇄한 책을 보면 남송본(南宋本)에서 볼 수 있는 글자체와 비슷하며, 구양순체(歐陽詢體)의 바탕에 둥근 필체가 곁들여져 있다.

계미자는 조선조에서 최초로 만든 동활자이기 때문에 활자를 주조한 방법과 조판하는 기술이 매우 미숙하다. 계미자의 판짜기는 판틀 바닥에 먼저 밀랍을 깔고 활자를 배열한 다음, 열을 가하여 밀랍을 녹이고 판판한 철판으로 위에서 고르게 눌러 활자면을 평평하게 하고, 열을 제거하여 각각의 활자가 굳어지면 인쇄를 하였다.

그러나 밀랍의 응고력이 약하여 인쇄도중에 자주 흔들리고 기울어져 수시로 밀랍을 녹여 부어야 했으므로 책의 소비량이 많으면서도 하루에 찍어내는 수량은 겨우 전지 몇 장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경우 활자는 밀랍 속에 잘 꽂힐 수 있도록 끝을 송곳처럼 뾰족



◆ 중국 남북조시대의 역사서인 '북사'에 주해를 단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로 태종3년에 주조된 계미자로 찍어낸 것이다.



◀ 서울시 중구 극동빌딩 앞에 세워진 주자소 비석.

하게 만들었지만, 활자의 크기와 두께가 고르지 못하고 인판도 거칠게 만들어져 인쇄도중 인체로 문지르는 힘에 의해 활자가 움직이게 되어 많은 인쇄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조건에서도 태종은 주자소에서 책을 찍어 팔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태종이 얼마나 서적을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문화사적으로 자못 의의가 크다할 것이다.

계미자로 인쇄한 책 가운데 현재 전하는 것은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송조표전총류(宋朝表 摠類)》,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도은선생시집(陶隱先生詩集)》, 《지리전서동림조담경(地理全書洞林照瞻經)》, 《찬도호주주례(纂圖互注周禮)》 등 7종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확인된 1420년(세종 2)에 만든 경자자(庚子字)로 인쇄한 《소미가숙점교부음통감절요(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의 서문을 보면, 계미

자 큰 자로 찍혀 있다. 이것으로 보아 경자자를 주조할 때 계미자를 녹여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주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계미자로 인쇄한 것을 다시 뒤집어 목판으로 새긴 번각본(飜刻本)이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두직해(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십일가주손자(十一家註孫子)》, 《대학연의(大學衍義)》 등 4종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계미자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계미자로 간행한 서적의 종류는 모두 12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태종이 주자소를 설치하고 금속활자로 책을 간행하고자 할 때 조정 신하들이 모두 이룩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태종이 억지로 우겨서 만들게 하여 모든 책을 인쇄하여 조정과 민간에 널리 펴오니 또한 거룩하지 아니하나.

〈황정하 · 고인쇄박물관학예실장〉